



LG전자가 프랑스 에비앙리조트골프클럽 대형 전광판에 상영하는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영상. 사진제공 | LG전자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 나선 전자업계

LG전자, 佛 에비앙챔피언십서 홍보영상 상영  
삼성은 캄보디아 태권도 대회서 유치 홍보 활동

전자업계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에 나섰다. 관련 데스크포스(TF)를 꾸리고, 다양한 행사에서 홍보를 벌이고 있다.

LG전자는 프랑스 에비앙리조트골프클럽에서 24일(현지시간)까지 열리는 아문디에비앙챔피언십에서 유치 활동을 한다. 대회 기간 클럽하우스 옆 대형 전광판에 '시그니처' 브랜드 영상 '완벽으로 가는 길'과 함께 박람회 홍보영상을 상영한다. 영상에는 'The One and Only Busan'이라는 메시지가 담겼다.

LG전자 유럽지역 대표 및 경영진도 이번 에비앙챔피언십 관련 행사에 참석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는 활동을 한다. 대회가 열리는 프랑스는 세계박람회 개최지를 결정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가 내년 말 개최되는 지역이다. LG전자는 앞서 올 초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와 영국 런던 피카딜리 광장 등 세계적 도시에 위치한 회사 전광판에 박람회 유치 홍보영상을 상영했다.

삼성전자는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국대사관 주최 태권도대회에서 박람회 유치 홍보 활동을 했다. 15일부터 16일까지 프놈펜 부영 크메르 태권도 훈련센터에서 열린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주최 대사배 태권도대회' 대회장에 부산세계박람회를 알리는 광고물을 설치하고 안내 책자도 비치했다.

삼성전자는 또 11일부터 14일까지 피지 수바에서 열린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 정상회의'에서 참가국 관계자들에게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했다. 8월 15일까지 충남 보령시에서 열리는 '2022 보령해양퍼드 박람회'에서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이동 서비스센터'에 엑스포 유치를 지원하는 광고물을 통해 국내외 방문객에게 '함께해요, 부산에서!'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김영민 기자 dionys@donga.com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 잇따라 발생  
현대차 '더 뉴 팰리세이드' 4072대 리콜

국토교통부는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한 현대차 '더 뉴 팰리세이드'(사진) 4072대에 대해 정조치(리콜) 한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더 뉴 팰리세이드 4072대는 엔진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저속(약 25km/h)에서 관성을 이용해 주행을 하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저속 주행 중 엔진 회전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동력이 전달되는데, 소프트웨어에서 엔진 회전수가 낮게 세팅돼 시동이 꺼진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국토부 자동차 리콜센터에는 올해 5월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출시된 더 뉴 팰리세이드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잇따라 신고된 바 있다.

현대차는 이날부터 현대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원성열 기자

신성장 동력 확보 나선 LF

“혁신기술 스타트업 본격 육성…시너지 기대”



▲LF가 '혁신기술 스타트업'에 투자

'LF인베스트먼트' 설립 통해 본격 투자 나서  
디지털·테크 플랫폼 기업 발굴해 변화 주도  
사내벤처 프로젝트 브랜드 '던스트' 등 인기  
2030 MZ세대 트렌드 분석해 제품에 반영



생활문화기업 LF가 미래 신성장 동력인 혁신 사업

찾기에 나섰다. 신규 자회사 LF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해 혁신기술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동반 성장 체계 구축에 나서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 기존 사내벤처 프로젝트를 통해 탄생한 패션·라이프 브랜드들의 선전도 눈길을 끈다.

●신규 자회사로 혁신 사업 발굴

먼저 14일 100% 자회사(설립자 본금 110억 원)로 신기술사업 운영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LF인베스트먼트를 설립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 신기술사업운영전문회사로 등록을 추진 중이며, 절차가 마무리되면 투자 규모를 확대해 벤처캐피탈사로서 유망 스타트업 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 및 지원 활동을 시작한다.

LF가 영위하는 패션, 뷰티, e커머스(전자상거래), 식품 등 소비트렌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뿐 아니라, 디지털 및 테크 기반의 플랫폼 기업을 발굴해 투자한다. LF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영역은 물론, 새 미래사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나아가 벤처기업 및 신기술 기업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운영해 국내 벤처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LF인베스트먼트 설립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소비 시장에서 변화를 주도하고 새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내부 개발뿐 아니라 외부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개방형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새 자회사를 중심으로 M&A(인수·합병)를 추진하고, LF를 비롯한 각 계열사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다양한 분야에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신임 대표이사로 조동건 전 디터엔인베스트먼트 부사장을 선임했다. KT 출신으로 엠벤처투자와 디터엔인베스트먼트 등에서 대표 펀드매니저를 지냈으며 헤이딜러, 와디즈, 모비데이즈 등의 투자를 이끈 바 있다.

유규식 LF 대표(부회장)는 “빠르게 변화하고 영역별 경계가 사라지는 무한경쟁 시장에서 차별화된 기업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서는 치열한 내부 개발은 물론, 외부에서도 뛰어난 혁신 사례를 찾아서 육성해야 할



LF가 신규 자회사 LF인베스트먼트와 사내벤처 프로젝트 브랜드 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나섰다. 사내벤처 프로젝트 브랜드인 '던스트'. 사진제공 | LF

때”라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와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LF와 중소·벤처기업이 지속적으로 함께 나갈 수 있는 동반성장의 벤처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사내벤처 프로젝트 브랜드 '인기'

LF의 사내벤처 프로젝트로 탄생한 패션·라이프스타일 브랜드들의 선전도 눈길을 끈다. 사내벤처 프로젝트는 새 시도와 변화를 주도하는 자율적인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임직원들의 새 아이디어를 적극 지원하고자 탄생했다.

사내벤처 프로젝트 1호는 고감도 스트리트 캐주얼 패션 브랜드인 '던스트'다. '밀레니얼 감성 캐주얼'이 콘셉트로, SNS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2030 MZ세대들과 호흡을 맞춘 패션 아이템을 발 빠르게 내놓고 있다. 계절별 아이템이 아닌 주별 트렌드를 분석하고 '나는 무슨 옷을 입고 싶은지', '요즘 스무 살은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는지' 등을 끊임없이 고민해 제품에 반영했다. 지나치게 튀지 않으면서 미세하게 다른 디테일, 질리지 않는 디자인, 힙한 분위기의 색감과 스타일리시한 핏을 강점으로 젊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사내벤처 프로젝트 2호 브랜드인 '스페이드클럽서울'도 인기다. 여유롭게 자연을 가꾸고 휴식을 즐기는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패션·라이프스타일 브랜드다. 환경에 대한 의식 있는 소비를 추구하고, 자신만의 취향을 과감하게 표현하는 2030 MZ세대를 핵심 타겟으로 한다.

티셔츠와 모자 등의 캐주얼 패션 제품군과 가드닝 및 리빙용품 등 라이프스타일 제품군으로 구성했다. 향후 브랜드의 방향성과 부합하는 국내·외 브랜드 및 아티스트와 손잡고 색다른 협업 프로젝트도 전개할 계획이다.

정성적 기자 jay@donga.com

기아, CJ대한통운과 친환경 물류 전용 'PBV' 공동 개발

(목적 기반 모빌리티)

봉고III EV 우선 공급...최적화된 PBV 개발  
로봇배송 등 자율주행 관련 사업도 공동추진

기아가 CJ대한통운과 친환경 물류에 최적화된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Purpose Built Vehicle) 개발에 나섰다.

기아는 21일 양재동 본사에서 기아 수소성 사장, CJ대한통운 강신호 대표이사, 기아 eLCV비즈니스사업부장 김상대 전무, CJ대한통운 택배·이커머스 부문 신영수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CJ대한통운과 '친환경 물류 운송 혁신 프로젝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30년 글로벌 PBV 톱 브랜드 도약 목표

이번 협약에 따라 기아는 올해부터 CJ대한통운의 전기 배송트럭 전환을 위한 봉고III 전기차(EV)를 먼저 공급하고, 궁극적으로 CJ 대한통운의 친환경 물류 사업에 최적화된 PBV를 개발해 2025년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CJ 대한통운이 봉고III EV를 활용해 물류 배송을 진행한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 요건을 제시하고, 기아가 이를 전용 PBV 모델 개발 및 봉고III EV의 상품성 개선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발 협력이 이뤄진다. CJ대한통운은 물류운송 현장에 가장 적합한 PBV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용성 테스트에도 참여한다.

양사는 PBV 개발 외에도 ▲봉고III EV 사용자경험(UX) 최적화 ▲상하차 작업 효율화 기술 혁신 ▲배터리 생애주



친환경 물류 운송 혁신 프로젝트 업무 협약. 기아는 21일 CJ대한통운과 '친환경 물류 운송 혁신 프로젝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CJ대한통운 택배·이커머스 부문 신영수 대표, CJ대한통운 강신호 대표이사, 기아 수소성 사장, 기아 eLCV비즈니스사업부장 김상대 전무(왼쪽부터). 사진제공 | 기아

기 신사업 기회 모색 등 봉고III EV를 활용한 다양한 솔루션 및 기술 등의 실증을 단계적으로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배송 물품을 싣고 배송기사를 따라 다니는 배송 로봇 등 자율주행 관련 시범사업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기아 관계자는 “CJ대한통운과의 전략적 협업을 통한 친환경 목적기반 차량 및 연계 솔루션의 본격 개발로 국내 1톤 트럭 중심의 물류 생태계 혁신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미래지향 PBV로 국내 소형상용트럭 시장 내 뉴노멀(New Normal)을 선도하고 운송 수단의 혁신을 이끌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아는 글로벌 PBV 선두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해 국내에서의 친환경 물류 운송 혁신 경험을 기반으로 미국, 유럽 등 해외 사업 확대도 전개할 계획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현대오일뱅크, 기업공개 계획 철회  
“우수한 실적에도...투자심리 위축 탓”

현대오일뱅크가 기업공개(IPO)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현대오일뱅크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최근 주식시장 상황과 동종사 주가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공개(IPO)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장 철회 이유는 최근 1년 사이 30% 가까이 하락한 코스피 지수, 투자 심리 위축, 금리인상으로 인한 경기불황 우려 등이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우수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현 시장 상황에서 더 이상 기업공개를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6월 이사회를 열고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추진하기로 결정, 같은 해 12월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6월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비록 기업공개는 철회하기로 했지만,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석유화학 소재와 바이오연료, 수소사업 등 미래사업에 대한 투자 및 재무구조 개선 노력은 끊임없이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